

GS, 해외로드쇼 통해 글로벌화 추진

GS그룹은 8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지에서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첫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8월30일 발표했다.

GS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해외로드쇼에는 GS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완경 부사장과 GS칼텍스의 경영전략 담당자 등이 참여해 해외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상반기 경영실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자는 슈뢰더, 싱가포르투자청, JP모건, 캐피털 등 40여개이다.

GS홀딩스 김성규 상무는 “계열분리 이후 새로운 CI와 경영이념, 비전 등 GS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외에도 적극 알리기 위해 해외로드쇼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GS는 2005년 3월 새로운 CI와 경영이념 공표에 이어 6월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Value 넘버원 GS(Respected & Value No.1 GS)를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8/31>